



김민우

호랑이 깨우는 베테랑의 '포효'

김민우, 5월 4할대 타율로 침체모드 타선 지휘
 서재응, 노하우 선수·열렬 응원으로 분위기 업
 새싹들 성장세에 고참들 힘 어울려 리빌딩 순조



올 시즌 KIA 타이거즈는 셋별들의 무대로 통한다. 투·타에서 젊은 피들의 깜짝 활약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 새싹들의 성장세와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리빌딩. 그 뒤에는

고참들의 힘이 있다. 실력과 열정, 여유와 웃음으로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매력 넘치는 KIA의 고참들이다.

김기태 감독의 정책 중 하나는 '고참 우대'이다. 김 감독은 캠프에서부터 "10년 이상 된 선수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후배들은 경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라"며 고참급 선수들과 신진급 선수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졌다. 고참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김 감독의 배려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

5월을 가장 뜨겁게 보낸 이는 14년차 김민우다. 캠프에서 시작된 부진이 시범경기에서도 계속되면서 올 시즌을 장담할 수 없었던 김민우였다. 목 디스크로 재활군까지 됐었지만 최용규의 부상 속 부름을 받은 그는 실력으로 지난 부진을 만회했다. 26일 경기전까지 5월 14경기에 나온 그는 0.429의 타율로 8타점을 만들며 침체 모드의 타선을 지휘했다. kt전 역전 끝내기 스리런의 주인공도 김민우였다. 5월의 주인공이지만 김민우는 겸손하다. 자신의 역할은 후배들의 조력자라는 것이 김민우의 이야기다.

김민우는 "나는 후배들의 경쟁자가 아니다. 애들이 힘겨워 할 때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내 임무다. 후배들이 팀의 중심이 되어 한다. 그게 팀이 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고참 역할을 말한다.

후배들에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고참 덕에 긍정적인 리빌딩이 이뤄지고 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뒤늦게 돌아온 서재응도 분주하다. 지난 넥센전에서 일찍 마운드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올 시즌에 대한 가능성은 보여줬다. 덕아웃 분위기를 띄우는 '응원단장' 자리도 변함없다. 덕아웃 앞에서 큰 소리로 후배들을 응원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고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등판을 준비했던 지난 15일 두산전이 우천취소된 뒤 서재응은 엔트리에서 일시 말소됐다. 다음 등판에 맞춰 재등락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지난 22일 경찰청과의 퓨처스 경기에서 등판했다. 6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를 포함, 8개의 안타를 맞는 것은 했지만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좋은 피칭을 한 서재응은 이날 사람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물하기도 했다. 6회 전준우에게 홈런을 허용한 그는 "일래 5회까지 던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후배들이 열정을 보여주라고 해서 다시 또 마운드에 올랐다가 홈런을 맞았다"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고참의 유쾌함이 덕아웃에 긍정 에너지가 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1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최고참 최영필, 힘겨웠던 2014시즌을 뒤로하고 열정으로 다시 출발한 김원섭과 최희섭, 독한 훈련과 특독 특 뛰는 입담으로 무장한 김병현. 70년대생 고참들의 조력 속에 KIA의 리빌딩 시즌이 긍정적으로 또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응

체육 꿈나무들 제주서 메달 사냥

광주·전남 선수단 2100명 전국소년체전 참가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이 제주 소년체전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전남 선수단 2100여명은 오는 30일부터 6월2일까지 나흘간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 광주는 32개 종목 1023명(선수 727명, 임원 296명)이, 전남은 34개 종목 1079명(선수 803명, 임원 276명)이 출전해 금맥을 캔다.

광주는 금 20·은 20·동 28개를 획득, 지난해와 같은 12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한계단 오른 9위를 목표로, 금 21·은 27·동메달 16개를 사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는 6년만의 최고 성적인 금 20개를 획득, 12위(금 20·은 21·동 29개)를 차지했고, 전남은 10위(금 22·은 19·동 36개)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심은 광주 봉산중의 소프트볼 5연패와 정서희(광양백운중)의 육상 멀리뛰기 3연패의 달성 여부다. 또 여대에서 고흥중의 신비(3년)·신복(1년) 형제가 몇 개의 메달을 합적하느냐도 주목된다.

광주는 전국 최강 전력의 여중 소프트볼과 배구(광주체육중·차평초), 정구(상무

초·금호중) 등이 무난한 대전을 받아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 김도(서석중), 하키(송광중), 야구(서석초·무등중)도 선전이 기대된다.

전통 강세 종목인 역도에서 손현호(송정중)는 3관왕을 예약한 상태이고, 정찬혁(정광중)도 금메달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궁의 박연경·김선우(이상 광주체육중)·이예진(두암초)도 금빛 과녁을 조준하고 있다. 기록 종목에서는 수영의 남상아(광주체육중)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관왕 준비를 마쳤다.

전남은 육상에서 4~5개의 금메달을 일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영·역도·양궁 등에서도 2개 이상의 금메달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둥이 선수들의 선전도 관심이다. 하키 여중부 문선의·문지의(중앙여중), 축구 여초부 이금빛·이은빛(광양중앙초) 자매와 유도 남중부 운동환·윤경환(순천신흥중) 형제가 출전한다.

장휘구 광주시교육감은 "선수·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테니스 요정의 서브

러시아의 마리아 샤라포바가 26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 가로에서 열린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1라운드 경기에서 에스토니아의 카이아 카네피를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승부조작' 폭탄

현직감독 스포츠토도 배팅 해놓고 팀 패 유도... 스포츠크계 긴장

현직 프로농구 감독이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농구는 물론 다른 프로 스포츠크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3월 프로농구 현직 감독인 A씨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사실 스포츠토도에 3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로 강모(38)씨 등 A씨의 지인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배팅한 경기 후반에 후보 선수들을 투입해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농구계는 2년 전 강동의 전 원주 동부 감독의 승부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당시 강 전 감독은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로부터는 제명당했다.

스타 선수 출신인 강 전 감독의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농구계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도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2-

2013시즌 정규리그가 끝난 뒤 10개 구단 감독이 한자리에 모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기 운영과 혼신을 다하는 플레이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번 사건이 사실상 밝혀질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된다. KBL은 "A감독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먼저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A감독의 소속 구단 역시 "KBL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본인이 시인하면 빠르게 결론이 나겠지만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녀 구단 전체에 '승부조작 관련자들의 접근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12년 초 불거진 프로배구 승부조작 세력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다시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움직임이 파악됐기 때문이었다. 프로농구 역시 리그 소속 선수가 불법 도박 관련자의 접촉을 받았다고 자체 신고를 해와 이를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 콜센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